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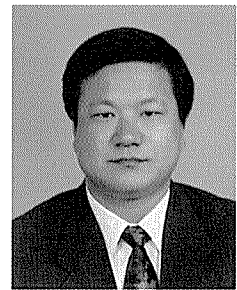


## 솔송나무

- ▶ 과명 : 소나무과
- ▶ 학명 : *Tsuga sieboldii*
- ▶ 한명 : 梅鐵杉
- ▶ 일명 : つ가

울릉도의 서면 태하에서 동남쪽으로 가파른 산길을 따라 남양방면으로 가는 길은 울릉도에서 가장 깊은 산중의 멋을 느끼게 하며 마치 전설의 고향처럼 으스스한 분위기마저 감돈다. 지금은 차량통행이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2시간 정도를 걸어 고개를 다 넘어가기 전에 솔송나무와 섬잣나무, 너도밤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을 만나게 된다.

1962년 12월 3일에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 50호인 경북 울릉군 서면 臺霞里 산 1-1의 면적은 145,786㎡ 으로 솔송나무가 100여 그루, 섬잣나무가 200여 그루, 너도밤나무 350여 그루 가량이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들어내며 자라고 있다. 이중 솔송나무는 일본에서는 흔히 자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내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식물지리학상 중요성을 갖는다. 소나무과에 속하는 솔송나무는 키가 30m나 되는데다 곧고 굵어 목재는 건축 및 선박용 재료, 외피는 펄프, 내피는 탄닌산 제조 등에 널리 쓰여 진다. 우리나라가 조선말엽에 러시아와 일본에 벌채권을 넘기면서 말 그대로 울창한 울릉도를 황량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소



▲ 솔송나무

### 1. 생태적 특성

울릉도의 표고 300~800m되는 곳에 자생하는 상록침엽큰키나무로 수고 30m, 직경 80cm까지 자라고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분포하며 공중습도가 높고 토심이 깊으며 비옥하고 배수가 용이한 경사지에서 군집을 형성한다. 내한성이 강하여 서울지방에서도 월동이

가능하나 북서향이 가려지고 키가 큰 낙엽활엽수 아래에서는 잘 자란다. 그늘에서도 어느 정도 견디어 주며 해풍이나 건조한 토양 또는 대기오염에도 강하며 친근성이며 원줄기 가까이 세근이 모여 있어 이식도 용이한 편이다.

## 2. 형태적 특성

성목이 되면 원줄기에서 옆으로 뻗어가는 가지가 수평으로 퍼지고 수관은 난상원형을 이룬다. 수피는 적갈색 또는 회갈색이며 종(縱)으로 갈라져 표피가 떨어지고 잎은 길이 1~2cm, 넓이 2.5~3.0mm로서 잎끝이 약간 들어가며 표면은 윤채가 있는 짙은 녹색이고 뒷면에 2개의 기공조선(氣孔條線)이 있다. 꽃은 자웅1가화로 5월에 자색의 꽃이 피며 수꽃은 위로 향하고 암꽃은 아래로 향한다. 열매는 길이 2.0~2.5cm, 지름 1.5cm의 솔방울로 타원형 또는 계란형이고 10월에 옅은 갈색으로 성



▲ 솔송나무

숙한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잎은 주목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길이가 짧고 폭이 좁으며 치밀하고 잔잔하여 관상 가치가 매우 높은 수종이다. 성목이 되면 가지가 늘어지고 잎이 치밀하여 공원의 동쪽 혹은 동북쪽의 넓은 들이나 광장, 공원 등지의 반 그늘진 곳에 정원수나 공원수로 식재하여도 좋다.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지 않는 곳에서는 응애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4. 번식법

번식은 가을에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밀봉 저장하였다가 파종 1개월전에 노천 매장하였다가 봄에 파종하면 많은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

묘포에서 전나무나 주목등과 같은 입고병에 주의하면 쉽게 양묘할 수 있다.

## 5. 그 밖의 용도

분재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목재는 무늬가 아름답고 재질이 좋아서 건축재, 기구재, 펄프재로 쓰이고 수피에서 탄닌을 추출한다. 



▲ 솔송나무